

문학과 <이여도>

김영화*

目 次

1. <이여도>란 무엇인가
2. 민요와 전설 속의 <이여도>
3. 소설 속의 <이여도>
4. 시 속의 <이여도>

1. <이여도>란 무엇인가

1995년 11월 하순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2·3학년 학생들에게 백지를 내주고, 제주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여도>에 대하여 아는 대로 써 보라고 했다. 갑작스런 주문에 무엇이라고 써야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필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50여명의 학생 중 40명이 이에 대답했다. 그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제주도 사람들의 이상향.
- ② 잠녀나 뱃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상향의 섬.
- ③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이상향으로 볼 수 있는 섬.
- ④ 섬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가 담긴 이상 공간.
- ⑤ 제주도 사람들의 꿈이며 희망인 곳, 가상의 섬.
- ⑥ 제주도 사람들이 각박한 삶 속에서 동경하고 그리워했음지도 모르는 상상

*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속의 섬.

- ⑦ 제주도 사람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이상향.
- ⑧ 파선되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일종의 무릉도원.
- ⑨ 인간이 바라는 가장 이상향의 세계.
- ⑩ 이상향.
- ⑪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이며 환상의 대상.
- ⑫ 낙원의 땅, 유토피아.
- ⑬ 낙원, 파라다이스, 무릉도원, 이상향의 섬.
- ⑭ 낙원의 섬, 파라다이스
- ⑮ 환상 속의 섬, 환상의 유토피아와 같은 섬.
- ⑯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토피아.
- ⑰ 환상의 섬, 이상적인 곳.
- ⑱ 환상의 섬이며 이상적인 곳, 무릉도원.
- ⑲ 상상의 섬, 낙원의 섬.
- ⑳ 유토피아의 성격을 가진 상상 속의 섬, 죽은 후의 이상 세계.
- ㉑ 서양 세계에 있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곳.
- ㉒ 상상의 섬.
- ㉓ 위와 같음.
- ㉔ 상상적 공간으로서의 섬.
- ㉕ 제주도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섬.
- ㉖ 실재하지 않은 섬.
- ㉗ 환상의 섬.
- ㉘ 전설 속에 나오는 환상의 섬.
- ㉙ 제주도민의 상상 속의 환상의 섬.
- ㉚ 빠져나올 수 없는 환상의 섬.
- ㉛ 잠녀들이 물질(잠수작업)을 하다가 환상적으로 보게 되는 섬.
- ㉜ 어부들이 고기잡이 갔다가 난파의 위기에 이르러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환상적으로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섬.
- ㉝ 그 섬을 찾아나선 사람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설의 섬.
- ㉞ 고깃배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된 사람들이 산다는 섬.

- ㉕ 위와 같음.
- ㉖ 고기잡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표류해 있다는 섬.
- ㉗ 위와 같음.
- ㉘ 자신의 삶과 환상이 공존하는 통합적인 세계.
- ㉙ 하늘(죽음)과 땅(삶)의 중간에 있는 세계.
- ㉚ 지옥과 같은 곳.

①~②은 이상향, 유토피아, 무릉도원, 낙원, 파라다이스 등 용어는 다르지만 <이여도>를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40명 중 21명이 이렇게 대답했다. 50% 조금 넘는다.

③~④는 상상의 섬, 환상의 섬, 실재하지 않는 섬 등으로 표현했다. 결국 <이여도>는 실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11명의 학생, 약 25%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⑤~⑦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불귀의 객이 된 사람들이 표류하는 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5명 즉 8%가 이에 해당된다.

나머지 3명은 삶과 환상, 삶과 죽음의 통합, 혹은 그 중간에 있는 세계라 했고, 1명은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대답했다.

사전 예고 없이 강의 시간에 불쑥 써 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다. 필자가 써 보라고 한 순간, 바로 그 때 떠오르는 생각을 쓴 것이다. 그만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그들의 생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에 예고했다라면 관계 문헌을 찾아 보고 썼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을 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질문을 던져 본 것이다.

대학 2·3학년이면 1974·5년생이 주류다. 20대 초반이고, 한국에서는 비교적 문학 작품을 많이 읽는 세대다. 그들이 <이여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도 앞 세대처럼 민요, 전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여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1명의 학생, 50% 이상이 <이여도>를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상상의 섬, 또는 환상의 섬이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도 이상향이라는 생각이 함축되

어 있다. 대다수가 <이여도>를 이상향으로 보고 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인 무릉도원(武陵桃源)이나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또는 파라다이스는 이미 하나의 공간 구조(空間構造)를 이루고 있고, 사람들의 기억과 이미지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민요, 전설, 문학 작품에서는 <이여도>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2. 민요와 전설 속의 <이여도>

제주도 민요를 수집하고 연구한 최초의 학자는 일본인 高橋 亨이다. 그는 1929년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민요를 조사했다. 이 때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조선의 민요」(1932), 「민요에 나타난 제주의 여자」(1932), 「제주도의 민요」(1952)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¹⁾

그가 제주도에서 조사 채록한 민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江南가진 해님을 보라	江南に往くには お日様見て行け
이여도가 半이라 한다.	離虛島が 半道ださうな.
이여말난 마라근 가라	離虛島といふ言 言はずに行きな
마랑가면 남이나 웃나.	言はずに行たとて 人様笑はふか.
이여말난 마라근 가라	離虛といふ言 言はずに行きな
이여하면 나 눈물난다.	離虛と言はれりや 妾しは泣ける. ²⁾

高橋 亨은 이 민요를 소개하고,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에 따른 전설이 있다고 했다. 전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려시대 몽고(원)가 제주도를 지배할 때 제주도 사람들은 소, 말, 기타 토산물을 중국(몽고)에 진상해야 했다.

1) 大谷 森繁, 「高橋先生과 朝鮮의 民謠」, 좌혜경 편, 『제주섬의 노래』(국학자료원, 1995), p.193.
 2) 高橋 亨, 『濟州島の民謠』(서울: 寶蓮閣, 1974), pp.54~55. 이 책은 1968년 일본 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에서 편집하여 내놓은 것을 보련각에서 영인했다. 그러나 민요와 전설의 수집은 1920년대 말에 이루어진 것이다.

- ② 중국을 향했던 배들은 이상하게도 돌아오지 못했다.
- ③ 제주도와 중국 사이에는 이허도(離虛島)라는 섬이 있고, 중국을 향해 떠난 배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 이허도에 가 버렸기 때문이다.
- ④ 어느 해 강씨라는 사람이 공물선을 타고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 ⑤ 뒤에 남은 아내는 “아 이허도야, 이허도”로 시작되는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섬 여인들의 정서적 공감을 얻어 부르게 되었다.

이 전설을 분석하면 <이여도>는,

- ① 제주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섬이고
 - ② 불귀의 객이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1960년대 초 김영돈이 수집한 민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옛문은 저승문이며
이여도질은 저승질이며
가난을충 몰르더라
신단보선에 불받아놓곡
입단웃에 풀혀여놓앙
애가카게 지들려도
다신을충 몰르더라³⁾

이 민요를 바탕으로 제주민의 삶과 연결시켜 풀이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바닷가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았다. 남편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고, 아내는 집안살림을 했다. 그 부부는 가난했다. 버선이 낡아 뒷꿈치가 헤어져도 아내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기워서(불 받아서) 다시 남편이 신도록 했고, 헌 옷도 빨고 다시 빨아 풀을 잘 해 놓고 새 옷처럼 입히면서 살았다.

그런 어느 날 고기잡이를 나갔던 남편이 풍랑에 불귀의 객이 되었다. 그러나 아내는 기다렸다. 그토록 사랑해 주던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3)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일조각, 1965), p.4.

남편이 벗어 놓고 간 버선을 다시 기우고, 옷을 빨아 풀해 놓고 애가 타게 기다렸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심경이 저절로 노래가 되어 나온 것이 이 노래이고, 같은 처지에 있는 섬 여자들의 공감을 얻어 부르게 된 것이다.

이 민요를 분석하면, <이여도>는, '저승의 세계'다.

1985년 제주도가 발행한 『제주도전설지』에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김순녀(여, 61)의 계보로 <이여도>와 관련된 전설이 소개되고 있다.⁴⁾

전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옛날 한 남편이 아내를 버려 두고 무인도인 이여도에 가서 침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다.

②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아내는 시아버지에게 배를 한 척 만들어 주면 남편을 데려오겠다고 했다.

③ 시아버지는 선흘(조천읍 선흘)에 가서 큰 나무를 베어다 배를 만들었다.

④ 아내와 시아버지는 그 배를 타고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하는 뱃노래를 부르며 이여도에 도착했다.

⑤ 남편은 아내와 아버지의 설득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다 풍파를 만나 몰살했다.

⑥ 그 후 고향 사람들은 불귀의 객이 된 그 가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 주었다.

이 전설에서도 <이여도>는,

㉠ 섬이고,

㉡ 그 섬에 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위에서 검토한 민요와 전설을 종합하면 <이여도>는,

㉢ 섬이고,

㉣ 그 섬에 갔던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정리된다.

결국 <이여도>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제주도 사람들은 저승의 세계도 이승의 세계처럼 섬이라는 공간을 상상했던 것이라고 할 수

4) 『제주도전설지』(제주도, 1985), p.67.

있다.

3. 소설 속의 <이여도>

소설 가운데 <이여도>가 나오는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다.

- 1944. 4. 이시형, 「イヨ島」(『국민문학』)
- 1960.12. 정한숙, 「IYEU島」(『자유문학』)
- 1976. 9. 이청준, 「이여도」(『문학과 지성』)
- 1981. 8. 김석범, 「火山島」(『文學界』)

이시형(1918~1950)의 소설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갈매기 나는 떠나면 저 세상
 님 있으리 복 많은 나라여
 해녀 실은 하얀 돛배
 마파람(南風) 뒷바람 받아
 오늘도 간다 님 사는 이여도에
 아 가고 싶구나, 나도야 가고 싶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그것은 이 섬의 민요였다. 해녀들은 해변에서 피로를 잊기 위해 부르고, 뱃사공들은 노를 저으며 장단 맞춰 부르는 남해 특유의 서정미 가득 찬 민요였다. 옛날부터 이 섬과 멀리 떨어진 동방에 이여도가 있다고 전해오고 있었다. 어선들이 폭풍우를 만나면 이여도에 피난한다. 이여도는 극락의 나라로 한 번 가면 돌아올 길을 잊어 버리게 된다. 용궁을 방불케 하는 전설적인 곳이다. 고기잡으러 출항했다가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고대하던 해녀가 등에서 우는 어린것을 달래며 자기도 남군이 있을 이여도에 가고 싶다고 애수를 담고 불렀다는 것이 이 민요의 시작이라고 했다.⁵⁾

이 소설은 이시형이 해방 직전 제주농업학교 교사로 있을 때 발표한 작품으로 그의 데뷔작이기도 하다. 그는 전해 오는 민요와 전설을 스스로 개작해서 제주도

5) 이 작품은 일문으로 발표되었다. 이영복의 번역으로 『제주예술 7호』에 게재되었다가 『제주문학 - 1900~1949』(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에 재수록됐다.

사람들의 삶을 <이여도>와 결부시켜 작품화했다.

이시형은 이 소설에서 <이여도>는,

㉠ 제주도 동쪽에 있고,

㉡ 어부들이 폭풍우를 만나면 가는 곳이며,

㉢ 용궁을 방블케 하는 극락의 세계로 한 번 가면 돌아오기를 잊어버리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와 ㉡는 민요나 전설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는 새로운 해석이고 <이여도>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용궁을 방블케 하는 극락의 세계'란 곧 이상향을 뜻한다.

이시형은 <이여도>가 사후 세계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그 사후 세계가 절망적인 곳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이상향으로 설정했다. 저승으로 간 남편이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갔기를 바라는 제주 여인들의 마음 속 깊은 소망을 읽어내고 <이여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바다에서 죽어 저승에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슬퍼하면서도 죽은 남편이 제발 사후에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제주여인들의 소망과 여인들도 죽은 후에는 남편이 가 있는 <이여도>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을 시적 상상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이 점이 민요나 전설과는 다르다.

해방 후 <이여도>가 소설에 나온 것은 정한숙(1922~)의 작품이다. 정한숙은 이 소설 서두에 <이여도>를 이렇게 제시한다.

이여(IYEU)도란 판도상에는 없는 섬으로 제주도 어부들이 마음에 그리고 있는 이상도다.

정한숙은 <이여도>를 어부와 연관시키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도라고 전제하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여도... 그것은 누구도 가 보지 못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섬이다. 그러나 배를 타는 뱃놈은 예로부터 그리던 섬이 분명했다. 이여도의 뱃노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진 몰라도 그리고 보면 우리 선조들도 우리들과 같은 모험과 꿈 속에 슬픔과 불행을 씌으며 살아가는 것만 같았다.

희망과 꿈을 간직하고 있는 신비의 나라인 이여도... 그러나 그 희망과 꿈은 누구도 실현해 보지 못한 비극의 섬이기도 했다.

정한숙은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 나름대로 변용해서 소설을 쓰는 작가인데 이 소설도 그런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 소설에서 <이여도>는,

㉠ 판도상에 없는 섬이고,

㉡ 제주도 어부들이 마음에 그리고 있는 이상도이며, 희망과 꿈을 간직하고 있는 신비의 나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시형이 설명한 “용궁을 방불케 하는 극락의 나라”나 정한숙이 설명한 “희망과 꿈을 간직하고 있는 신비의 나라”라는 것은 말만 다를 뿐 이상 세계로 설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시형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현대인은 그런 이상 세계를 마음 속에 그리면서 <이여도>를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제주도 섬 안에 건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한숙에 이어 <이여도>를 소재로 쓴 작가는 이청준(1939~)이다. 그는 이 소설에서 <이여도>를 <이여도>로 고쳐 쓰고 있다.⁶⁾ 이청준도 정한숙처럼 소설의 서두에 <이여도>를 제시한다.

긴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에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 섬으로 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여도>를 설명하고 나서 더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그것(이여도를 지칭=인용자)은 이를테면 오랜 세월 동안 이 제주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설의 섬이었다. 천리 남쪽 바다 밖에 파도를 뚫고 꿈처럼 하얗게 솟아 있다는 제주도 사람들의 피안의 섬이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제주도 사람들의 상상의 눈에는 언제나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수수께끼의 섬이었다. 그리고 누구나 이승의 고된 생이 끝나고 나면 그곳으로 가서 새로운 저승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제주도 사람들의 구원의 섬이었다. 더러는 그 섬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 번 그 섬을 본 사람은 이내 그 섬으로 가서 영영 이승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없는 섬이었다.

이청준은 이 소설에서 <이여도>를,

6) <이여도>, <이여도>가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후렴구이고 청각에는 <이여도>처럼 들린다. 필자는 <이여도>로 통일한다. 단 인용의 경우는 원문에 충실한다.

- ① 제주도 사람들의 상상 속의 섬이고,
- ② 그 섬은 곧 저승이며,
- ③ 거기에 가면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다.

이시형의 관점과 비슷하다. 이시형에게 “극락의 세계”가 이칭준에게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섬”이다. 말만 다를 뿐 <이여도>는 하나의 이상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김석범(1925~)의 『화산도』에도 <이여도>가 소개된다. 그는 高橋 亨이 채록한 민요와 전설을 바탕으로 <이여도>를 해석하고 있다. 高橋 亨이 소개한 전설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명쾌하고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 있다.

고려시대, 몽고에 침략당한 탐라는 13세기를 사이에 두고 약 100년 동안 그 지배를 받아 왔다. 김통정이 이끄는 삼별초군이 탐라를 최후의 근거지로 삼아 항전하다가 끝내 패배함으로써 시작된 원 나라의 지배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원 나라의 지배하에 놓인 당시의 탐라는 매년 섬의 토산물을 원 나라에 공물로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공물을 실은 배는 섬의 남서쪽에 있는 대정현 모슬포에서 출항하여 중국의 산둥지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대정의 강씨라는 사람이 운송대리업자가 되어 매년 수척의 큰 배를 공물선으로 내보냈다. 공물을 가득 실은 배는 황해를 건너 아득히 먼 중국땅으로 향하는데, 이상하게도 공물선은 무사히 섬에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 무렵, 항로 중간에 '이허도(離虛島)' 즉 이여도라는 섬이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섬은 탐라인이 섬 밖으로 나갈 때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섬인데, 나갈 때든 돌아올 때든 이 섬에만 도착하면, 일단 항해의 안전이 기약된다고 믿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까지 아무도 가 본 적이 없는 섬, 중국과 탐라 사이의 바다 위에 있다는 것 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섬이었다. 어느 해 선주인 강씨는 직접 공물선을 타고 산둥지방을 향하여 배를 띄웠지만, 그도 결국 섬에 돌아오지 못했다. 혼자 남게 된 강씨의 늙은 아내는 불귀의 객이 된 남편을 그리워하며, 환상의 섬 이여도를 향하여 이여도여, 이여도여...로 시작되는 즉흥곡을 만들어 통곡의 슬픔을 노래했다. 역시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같은 처지의 과부들이 이 애절한 노래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다.⁷⁾

이 인용문은 高橋 亨이 제시한 전설을 현대감각에 맞게 풀이한 것이다. 그러면 서 김석범은 등장인물 이방근의 입을 빌어, 이 전설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7) 이 소설은 1988년 6월 이호철·김석희의 번역으로 실천문학사에서 나왔다. 이 글에서 인용한 것은 번역본이다.

이어도는 오랜 역사의 시간과 더불어 제주도 사람의 꿈을 키워 주는 꿈의 섬, 즉 이상향(理想郷)이 되었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게 재미 있어. 아직 아무도 거기까지 가 본 적이 없다지만, 설사 거기에 도착한 사람이 있다 해도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그러니까 마(魔)의 섬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매년 윈 나라까지 공물을 보내느라 계속 착취당해 온 섬 사람들의 원한도 그 꿈에 담겨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환상의 섬, 행복과 이상의 섬으로서 오랫동안 섬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있으면서, 그들을 꿈과 모험으로 몰아낸 셈이지.

김석범은 이 소설에서 <이어도>는,

- ㉠ 제주도와 중국 사이에 있고,
- ㉡ 꿈의 섬, 환상의 섬, 행복과 이상의 섬이며,
- ㉢ 그 섬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되돌아오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이런 해석은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 高橋 亨이 제시한 민요와 전설을 좀더 부드럽고 세련되게 다듬어 서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도>가 이상향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아까 이어도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기에, 어찌면 발밑에 있는 이 섬이 이어도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실 문제로서, 환상의 섬은 이 제주도가 되어 원래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 지방에서 혁명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혁명을 합니다.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일본에서 이어도를 찾으러 여기에 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어도를 바다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이 섬에서 찾는 겁니다... 이 섬에 이어도를 만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김석범은 <이어도>를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그런 이상향을 제주도에 내어 건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것은 정한숙의 소설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이시형, 정한숙, 이청준, 김석범의 소설들에 나타난 <이어도>는 이상향이다. 이 점은 민요나 전설과 다른 점이다. 그것은 <이어도>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현대인이 생각하는 상상 속의 이상향으로 설정했다.

4. 시 속의 <이어도>

현대시에 <이어도>와 관련된 작품은 상당수 있다. 그러나 후렴으로 나오거나 민

요의 일부를 차용한 것 등 기계적인 적용이 많다. 그 가운데 시적 공간, 상상적 공간을 어느 정도 드러낸 작품은 다음과 같다.

- 1980. 5. 김용해, 「이어도」(시집 『이어도하라』)
- 1992. 8. 양중해, 「이어도」(시집 『한라별곡』)
- 1993.11. 김순이, 「이여도」(시집 『미친 사랑의 노래』)

시집이 나온 순서대로 시 속에 <이여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 바당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어머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이승인 듯 저승인 듯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제주 바다 길.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에서 어머님은 꽃이 되어
피고 있습니다.

- 김용해의 「이어도」 전문

이 시에서는 어머니가 죽어서 <이여도>에 갔다. 가서 꽃이 되어 피어 있다. 나는 어머니가 가 있는 <이여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여도>는 저승이며, 저승에 간 어머니는 꽃으로 환생해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곳 — 그러므로 <이여도>는 꽃이 피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종의 이상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어렸을 때의 어느 봄날
나는 어른들을 따라
뚝배를 타고 나갔었다.

뚝배가 수평선에 다다랐을 때

문학과 <이여도>

수평선 밖에는 또 하나의 수평선이
그 수평선 위에는 섬이 하나 있었다.

우리 배는 그날 그 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섬이 이어도라는 것을
돌아온 날 저녁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섬에는 상록수가 우거지고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고 있고
사철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고도 했다.

어부들이 고기잡이로 나갔다가
잡수들이 먼 바다로 물질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도 했다.

누구나 한번 들어가 보기만 하면
너무나 좋아 살아 버린다는 섬
나도 언젠가는 꼭 가보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다.

— 양중해의 「이여도」에서

이 시에서 <이여도>는 '상록수가 우거지고,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며, 어부와 잡수들이 살고 있는 섬'이다. 이상향이라고 생각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소용돌이 물굽이
죽음으로 건너가면

가난도 없다.
이별도 없다.
슬픔도 없다.

그리운 사람들
고운 옷 입고
고운 밥 먹으며
연꽃 구경하며 웃음짓는 섬

— 김순이의 「이여도」에서

이 시에서 <이여도>는 저승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 저승이 하나의 이상향이다. 그곳에는 가난, 이별, 슬픔이 없고, 사람들은 고운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

으며 연꽃이나 구경하는 한가롭고 평화로운 곳이라는 것이다.

현대시에서도 소설처럼 <이여도>는 이상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5. <이여도>의 공간 구조(空間構造)

민요, 전설, 소설, 시 등 문학에 나타난 <이여도>는 사후 세계이면서 동시에 이상 세계다. 그것은 20대 초의 독자들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아니, 독자들은 민요나 전설 혹은 소설과 시를 읽고 <이여도>를 이상 세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민요에 나오는 “이여, 이여…” 하는 후렴구는 애초에 별 뜻이 없는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 땀을 흘리면서, 혹은 노를 저으면서 노동의 윤택유적 기능을 한 단순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세의 사람들에 의해 <이여도>는 상상 속의 섬이며, 저승이고, 이상향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절해고도에 살면서 제주도 사람들은 바다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대신 수없이 목숨을 잃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르면 가도가도 수평선이다. 그 수평선 너머에 고통이 없는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이승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증폭된다. 그런 마음이 모여져 어느새 <이여도>라는 사후 세계를 설정하고 거기에 이상 세계를 꿈꾸었던 것이다.

인간은 현세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 속에 이상 세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현세의 고통을 잊었다. 그것이 문학 작품으로 나타난 것이 서양에서는 토마스 모어(1478~1533)의 공상소설 「유토피아 : Utopia」이고, 동양에서는 陶淵明(356~427)의 시 「桃花源記」다. 토마스 모어는 그가 살았던 당대 사회와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다. 당시의 유럽, 특히 영국 사회를 비판하고 그가 생각하는 이상 사회를 소설 속에 그렸다. 도연명은 군벌 항쟁이 거듭되는 세파에 시달리다 관직을 버리고 전원 생활을 했다. 그는 전원 생활을 예찬하고 그 가운데 이상 세계를 상상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옮겼다.

중국·한국·일본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그런 만큼 그들은 감각이나 정서, 나아가 사상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 세계도 토마스 모어가 생각한 유토피아보다 도연명이 생각한 무릉도원에 더 마음이 끌렸다. 그들은 도연명의 작품을 읽고, 감동한 나머지 하나의 톱포스(topos : 하나의 구상이 바탕에

여러 가지 문학적 모티프의 배치)로 작품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중국의 시인이 나 화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과 일본의 시인 화가들이 「도화원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의 조식(1501~1572), 박인로(1561~1642)의 시조에 무릉도원이 나오고, 안견의 그림에 「夢遊桃源圖」(1447)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무로마찌 시대에 江西龍派(1374~1446), 도쿠가와 시대에 與謝蕪村(1716~1783)의 시가 있고, 그림으로는 18세기 池大雅의 「武陵桃源圖」 등이 있다.⁸⁾

5세기 초에 씌어진 것으로 보이는 도연명의 「도화원기」가 동아시아의 문인, 화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그것을 토포스로 작품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게 만든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중국·한국·일본 모두 농경문화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런 문화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 속에 그리는 이상향이 이 작품 속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晉太元中，武陵人捕魚爲業，緣溪行，忘路之遠近，忽逢桃花林。來岸數百步，中無雜樹，芳草鮮美，落英繽紛。漁人甚異之，復前行，欲窮其林。林盡水源，便得一山。山有小口，髣髴若有光，便舍船從口入。初極狹，纔通人。復行數十步，豁然開朗。土地平曠，屋舍儼然，有良田美池桑竹之屬。阡陌交通，雞犬相聞。其中往來種作，男女衣著，悉如外人，黃髮羸鬢，並怡然自樂。見漁人，乃大驚，問所從來。具答之，便要還家，設酒殺雞作食。村中聞有此人，咸來問訊。自云先世避秦時亂，率妻子邑人來此絕境，不復出焉，遂與外人間隔。問今世是何世，乃不知有漢，無論魏晉。此人一一爲具言所聞，皆歎惋。餘人各復延至其家，皆出酒食。停數日，辭去。此中人語云，不足爲外人道也。既出，得其船，便扶向路，處處誌之。及郡下，詣太守，說如此。太守卽見人隨其往，尋向所誌，遂迷不復得路。南陽劉子驥，高尚士也。聞之，欣然親往。未果，尋病終。後遂無問津者。

(진나라 태원년간에, 무릉 사람으로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물길을 따라 갔다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모를 무렵, 홀연히 복숭아꽃 숲이 눈앞에 나타났다. 양쪽 강을 끼고 수백보의 거리에 운동 복숭아나무뿐이며, 다른 잡목은 하나도 없었다. 또한 향기로운 풀들이 싱싱하고 아름답게 자랐고, 복숭아 꽃잎이 펄펄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다. 어부는 이상하게 여기고 계속 앞으로 나가 그 복숭아 숲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했다. 숲은 강 상류에서 끝났고, 그곳에 산이 있었으며, 산에는 작은 동굴이 있고 그 속으로 희미하게 빛이 보였다. 어부는 즉시 배에서 내려 동굴 속으로 따라 들어갔다. 동굴은 처음

8) 芳賀 徹, 「桃源郷の系譜(2)-東アジアの理想郷」 및 「桃源郷の系譜(3)-日本における桃源郷」, 「文學の東西」(放送大學振興會, 1988), pp.89~116.

에는 몸시 좁아 간신히 사람이 통과할 수 있었으나, 수십 보를 더 나가자 갑자기 탁 트이고 넓어졌다. 토지가 평평하니 넓고, 집들이 정연하게 섰으며 기름진 논밭과 아름다운 연못, 뽕나무와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사방으로 길이 트였고 닭과 개 우는 소리가 들려 왔다. 이 마을에서 왔다갔다하며 농사를 짓는 남녀의 옷차림은 다른 고장 사람들과 꼭 같았으며, 노인이나 어린이나 다들 즐거운 듯 안락하게 보였다. 어부를 보자 크게 놀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어부가 자세히 대답하자, 그들은 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내고 닭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 마을 사람들도 어부가 왔다는 말을 듣고 모두 와서 저마다 물었다. 집주인이 말했다. “우리 선조가 진나라 때의 난을 피해 처자와 마을 사람을 이끌고 이 절경으로 와 다시 나가지 않았으므로 결국 바깥 세상 사람들과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냐고 묻는 것을 보니 그가 한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물론 그 뒤로 위나라, 진나라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하겠다. 어부가 지난 역사를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해 주자 모두들 놀라며 감탄했다.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어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서 술과 밥을 대접했다. 어부는 며칠을 묵은 후 작별하고 떠났다. 그 마을 사람이 말했다.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부는 마을을 벗어 나와 배를 얻어 타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군데 표식을 했다. 읍에 이르자 태수를 찾아 그대로 보고를 했다. 태수는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어부가 표식을 한 곳을 찾아가게 했으나, 결국 길을 잃고 도화원으로 통하는 길을 찾지 못했다. 남양의 유지기는 고결한 은사였다. 그 소리를 듣고 기꺼이 몸소 나섰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다. 그 후로는 뱃길을 찾는 사람이 다시 없었다.)⁹⁾

이 시를 읽고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다. 언어예술인 시를 읽고 화가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림을 그린 것이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시적, 상상적 공간 구조가 이 작품에는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복사꽃이 활짝 피어 있는 숲을 만났다. 복사꽃이 만발하거나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 봄은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세 속의 괴로움을 잠시 잊고, 마치 별천지에 들어선 느낌을 준다. 그것은 옛날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도시의 삶에 찌든 현대인을 복사꽃이 만발한 숲으로 데려가면 더 행복감과 황홀감을 느낄 것이다.

이 어부는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작은 구멍을 발견한다. 그 구멍을 따라 들어가니 확 트인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전개된다. 거기에는 평평하고 넓은 토지가 있고, 집들은 가지런했으며 기름진 논밭과 아름다운 연못, 저기에다 뽕과 대나무가 어우

9) 장기근 편저, 『陶淵明』(태종출판사, 1975), pp.331~334.

러져 있다. 길은 사방으로 통해 있고, 한가하게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씨 뿌리는 사람들은 모두들 즐거운 듯 일하고 있었다.

이러하면 농경민의 꿈과 이상이 있는 곳, 그곳이 무릉도원이다. 이 작품에는 이 이야기가 있고, 사람의 생활이 있으며 한쪽의 그림과 같은 풍경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독자나 후대의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어도>는 어떤가.

민요에는 <이어도>를 ‘전복이 많고 미역이 많은 곳’이라고 한 것도 있고 ‘연꽃이 피어 있는 곳’으로 된 것도 있다. 이시형은 ‘극락의 나라로 용궁을 방불케 하는 곳’이라고 했으며, 양중해는 ‘상록수가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며, 꽃이 피어 있는 곳’이라고 했다. 김순이는 ‘가난, 이별, 슬픔이 없고,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서 연꽃을 구경하며 웃음짓는 곳’이라고 했다. 모두 인간이 바라는 세계다. 그러나 너무 단조롭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활이 없다. 그림으로 그린다고 해도 추상적이어서 화가마다 제멋대로 그릴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면 인간의 생활이 묘사되고 그것이 현대의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어야 한다.

민요의 후렴구에 나오는 “이어, 이어…”는 의미가 없는 어조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어도>라는 섬이 있고 그것을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것이 제주도 문화의 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어도>는 제주 문화사(濟州文化史)의 소산일 수 있다.

이 시대의 작가의 과제는 <이어도>의 공간 구조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해양문화, 도서문화, 나아가 섬 사람들의 상상 공간과 이상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